

# “죽어가는 새만금 갯벌보며 부처님도 예수님도 울고 있다”

## 갯벌 살리기 3보1배 현장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 제가 먼저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삼보일배(三歩一拜) 참회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걸음 내디디며 전생 현생 제가 지은 죄를 고해하고, 한 걸음 내디디며 치열하지 못한 수행의 자세를 가다듬고, 한 걸음 내디디며 두 손 모아 발로참회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고, 하나의 몸이 청정하면 모든 중생의 몸이 청정하고, 하나의 국토가 청정하면 일체 국토가 청정하다고 했으니, 제가 먼저 청정해질 때까지 동체대비의 길을 가고 또 가겠습니다. 탈진해 쓰러지는 저의 몸속에 마침내 환하게 꽃피는 봄날이 멀지 않았습니니다.”(수경스님의 ‘삼보일배 발로참회를 시작하면’ 서중)

28일 부안 해창갯벌, 새만금 갯벌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가 시작됐다.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과 문규현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를 비롯, 이희운 목사(기독교생명연대 사무처장), 김경일 교무(원불교 문화교당 주임교무) 등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김제 죽산, 군산, 서천, 응천, 보령, 홍성, 예산, 아산, 천안, 평택, 수원, 안양, 서울 구로, 영등포, 여의도, 광화문까지. 두 달 동안 약 300km. 삼보일배로 참회의 길을 걷는 스님과 신부, 목사 뒤로는 전국 각지에서 온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조용히 따랐다.

입석식은 오영숙 수녀(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의 사회로 이선종 교무(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가 새만금 간척사업 12년째를 상징하는 12번의 경종 소리로 시작했다. 최열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과 전북도립국악원 배승현 씨의 살풀이 춤이 이어졌다.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이희운 목사·김경일 교무  
해창갯벌~광화문까지 300km 두달동안 3보1배

수녀들 고행길 종교인들에게 노래로 기운 돋워  
턱낮한 스님 일행도 장승 주변에서 걷기명상

박경조 신부(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는 지지발언을 통해 “새만금 갯벌이 죽어가고 있어 하늘도 부처님도 울고 있다”며 “3분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뭉개 생명이 고동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자”며 종교인들에게 제안했다.

지역어민 염정우(41, 남)씨도 “어제 만났던 마을 사람에게서 이제 떠나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 등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삼보일배 정진에 들어가 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이시재 교수(새만금 생명학회 부회장) 또한 “새만금 문제는 올해 방조제 공사가 끝날 예정이어서 금년이 고비”라며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은 자연생태에 가해지는 전쟁을 비폭력으로 막기 위해 삼보일배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원택스님(녹색연합 공동대표)을 비롯한 4개 종교인들은 출발 선언문을 통해 “새만금 갯벌은 인간의 그릇된 허상과 탐욕이 빚고 있는 거대한 전쟁터”라고 지적하고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식량안보와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한 순간에 자기 말을 뒤엎었다”며 “평분과 논리, 도덕성을 상실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즉각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깨끗이 물러설 것”을 주장했다.

사랑의 실천 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2달간의 고행을 떠나는 종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등의 노래로 기운을 북돋웠다. 또 4개 종교인들은 각자의 성소에서 종교별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의 분위기는 결연했다. 새만금 갯벌이 죽어가는 자리에 선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음으로 울고 있었다.

현봉스님(순천 송광사 주지),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정경스님(조계종 사회



◇한국을 방문중인 턱낮한 스님과 20여 수행자들도 삼보일배 현장을 찾아 걷기명상을 했다.

국장) 등은 새만금 해창사(주지 수경)에서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을 공경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조화와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데 불제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턱낮한 스님도 20여 수행자들과 함께 새만금 장승 주변에서 걷기명상을 한 뒤 자리를 떠났다.

2001년 명동성당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2002년에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2003년은 부안 새만금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이들의 삼보일배는 단순히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시위’가 아니다. 그것은 ‘너는 나의 뿌리며, 나 또한 너의 뿌리’라는 화엄경의 연기를 몸으로 실천하는 처절한 몸짓이다.

글=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를 선두로 새만금 갯벌과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2개월 여정의 삼보일배가 시작됐다.



◇원택스님(오른쪽 두번째)등 4개 종교인들은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 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인해 전 에 있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공해와 오염의 독을 없애고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 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이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중장기의 암 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없애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지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 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질병으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나라 깊은 산 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배제정도를 거친 그 결실을 불치병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